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반성*

이 남 인

(서울대학교 철학과)

1. 들어가는 말

지난 2~3세기 동안 경제학은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다양한 경제현상을 설명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무엇보다도 19세기 중반 한계

* 이 논문은 김완진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이정전 교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필자가 “2002년도 서울대학교 간접연구경비 학제적 협력연구비”를 지원받아 “합리성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수행한 연구의 한 부분이다. 필자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직전인 2002년 3월부터 이정전 교수님, 김완진 교수님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과 경제철학집담회를 개최해 왔는데, 이 집담회는 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 논문은 2005년 1월 28일에 개최된 경제철학집담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는 이정전 교수님, 김완진 교수님을 비롯하여 그동안 경제철학집담회에 참석해 필자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 제 어: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경제행위, 기술적 합리성 개념, 규범적 합리성 개념
rationality, economic rationality, economic behavior, descriptive concept of rationality, normative concept of rationality

효용학파의 등장 이후 주류 경제학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면서 수리물리학을 모범으로 삼는 정밀과학으로 전개되었다. 주류 경제학은 물리학이 객관적인 자연법칙을 토대로 물리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할 수 있듯이 경제현상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을 발견함으로써 물리학과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하고자 시도하였다.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예측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는 이유는 그것이 아직 정밀과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물리학이 과학혁명기에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듭한 후에 비로소 정밀과학으로 정립될 수 있었듯이 경제학 역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언젠가는 물리학과 유사한 정밀과학으로 정립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¹⁾

그런데 19세기 중반 이후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물리학과 유사한 정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바로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서 찾았다. 이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면서 수리경제학을 개척해 나갔다.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경제학이 정밀과학으로 정립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은 경제현상뿐 아니라, 정치현상, 사회현상, 법현상, 심리현상 등

1) J. von Neumann과 O. Morgenstern은 “모든 수리화하는 과학이 이러한 연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J. von Neumann and O. Morgenstern(1990),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8)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기 꼭 70년 전에 수리경제학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Walras는 이미 1874년에 출간된 『순수정치경제학의 요소』에서 “순수정치경제학”을 “모든 점에서 수리물리학을 닮은 과학”(L. Walras(1954), *Elements of Pure Economy or The Theory of Social Wealth*, trans. by W. Jaff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71)으로 정의하면서 경제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Walras에 의하면 수리물리학이 물리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L. Walras(1954), *Elements of Pure Economy or The Theory of Social Wealth*, 62) 정밀과학이듯이 경제학 역시 경제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고 설명하는” 정밀과학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일군의 연구자들은 정치, 사회, 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인간의 행위 역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은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인간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²⁾을 시도하였고, 그를 통해 경제학은 정치학, 사회학, 법학, 심리학 등 인접 사회과학을 식민지화하면서 “경제학적 제국주의”³⁾가 형성되어 나갔다.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경제학이 정밀과학인 수리경제학으로 탈바꿈하고 그를 통해 경제현상의 중요한 측면들을 밝혀내는데 크게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합리성 개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여러 가지 시각에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은 우선 경제학 안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의하면 주류 경제학을 지탱하고 있는 합리성 개념은 도구적 합리성 개념인데,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 개념만으로는 경제현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학은 도구적 합리성 개념 이외의 다른 유형의 합리성 개념, 예를 들면 절차적 합리성 개념, 표현적 합리성 개념 등을 필요로 한다.⁴⁾ 더 나아가 심리학, 사회학 등 경제학 이외의 사회과학으로부터

2) G. S. Becker(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G. Radnitsky and P. Bernholz(1987), *Economic Imperialism*, New York: Paragon House.

4) 경제학 내부에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을 비롯하여 다양하다: H. Simon(1982),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Cambridge, MA: MIT Press; H. Leibenstein(1976), *Beyond Economic Man. A New Foundation for Microeconom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 Hargreaves Heap(1989), *Rationality in Economics*, London: Basil Blackwell Ltd.; V. Walsh(1996), *Rationality, Allocation, and Repro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H. Stewart(1995), “A Critique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n: *Economics and Philosophy* 11; F. Laville(2000), “Foundations of Procedural Rationality”, in: *Economics and Philosophy* 16.

도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일군의 심리학자들은 구체적인 심리학적 연구를 토대로 사람들이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적 합리성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⁵⁾ 사회학적 입장에서 출발하여 일군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규범을 따르는 행동이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효용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사회규범이 도구적 합리성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고유한 “사회적 합리성” 혹은 “문화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효용을 떠나 규범을 지키는 일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개진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⁶⁾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은 철학에서도 진행되어왔다. 예를 들면 Hollis와 Nell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떠받들고 있는 실증주의적 인식론과 형이상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하고 있고,⁷⁾ Rawls, Gauthier 등은 윤리학적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지니고

5) A. Tversky and D. Kahneman(1987),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in: R. M. Hogarth and M.W. Reder, *Rational Choice. The Contrast between Economics and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D. Kahneman(2000), “New Challenges to the Rationality Assumption”, in: D. Kahnemann and A. Tversky(eds.), *Choices, Values, and Fram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sumption”, in: D. Kahnemann and A. Tversky(eds.), *Choices, Values, and Fram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정전(2005), “경제적 합리성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20; A. Ben-Ner and L. Putterman(eds.)(1998), *Economics, Values, and Organ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E. Anderson(2000), “Beyond Homo Economicus: New Developments in Theories of Social Norms”, in: *Philosophy & Social Affairs* 29/2 등을 참조.

7) M. Hollis and E. J. Nell(1975), *Rational Economic Man*, London/New York:

있는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⁸⁾

이제 우리는 철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비판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철학적 관점에서 합리성 개념의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지닌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우선 제2절에서 우리는 이 장 전체의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 개념의 정체를 간단히 살펴본 후 제3절부터 제6절 사이에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거기에 이어 우리는 제7절에서 우리가 수행할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비판과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

2. 경제적 합리성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표준적인 이해에 의하면 우선 경제적 합리성의 담지자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개인만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불릴 수 있지,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는 합리성의 담지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합리성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에 대해서는 김 청택, “경험 과학에서의 합리성의 개념: 논리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 참조.

- 8) J. Rawls(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 Gauthier(1988), *Morals by Agreement*, Oxford: Clarendon Press. 그 이외에도 도구적 합리성과 도덕적 합리성 혹은 가치합리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W. Vossenkühl(1985), “Types of Rationality and Economic Action”, in: P. Koslowski, *Economics and Philosophy*, Tübingen: J.C.B. Mohr; A. Sen(1977), “Rational Fools”,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6.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담고 있는 국내학자의 연구로는 J. S. Park(1992), *Contractarian Liberal Ethics and the Theory of Rational Choice*, New York: Peter Lang; 박정순(1998), “호모 에코노미쿠스 살생부”,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21이 있다.

자가 될 수 없다.⁹⁾ 그리고 이러한 표준적인 이해에 의하면 경제적 합리성은 완전성과 도구성을 특징으로 한다.¹⁰⁾ 경제적 합리성이 지닌 완전성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개인은 매순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 가능성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능성들을 비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도구성은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행위가능성들을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위가능성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수학적 개념을 동원하여 공리화시키면서 주류 경제학은 수리경제학으로 전개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소비이론이다.¹¹⁾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행위하는 어떤 사람이 x, y, z 등 여러 가지 품목 다발 중에서 어떤 다발을 사려고 할 경우 이 다발들에 대한 그의 선호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xRy 는 “이 행위자가 x 를 y 보다 좋아하거나 적어도 x 를 y 만큼 좋아한다”를 의미하고, xPy 는 “이 행위자가 x 를 y 보다 좋아한다”를 의미하며, xIy 는 “이 행위자가 x 와 y 를 똑 같이 좋아한다”를 의미한다.)

9) 정치학에 있어서의 경제학적 접근법을 시도하면서 J. M. Buchanan과 G. Tullock은 “개인만이 선택을 하며 [...] 합리적 행위는 오직 개인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전제”(J. M. Buchanan and G. Tullock(1974),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32)에서 출발해 사회적 합리성은 논의로 하고 개인적 합리성만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10) H. Stewart(1995), “A Critique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n: *Economics and Philosophy* 11, 59-60.

11) 이 점에 대해서는 S. Hargreaves Heap(1989), *Rationality in Economics*, London: Basil Blackwell Ltd, 41 이하, V. Walsh(1996), *Rationality, Allocation, and Repro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40 이하 등을 참조할 것.

1. 반사성: 어떤 품목 다발 x 에 대해 xRx . 다시 말해 어떤 행위자는 x 를 언제나 x 만큼 좋아 한다.

2. 완전성: 어떤 두 품목 다발 x, y 가 있을 때 xRy 이거나 yRx . 다시 말해 어떤 두 가지 품목 다발은 그 선호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제나 비교가능하다.

3. 이행성: xRy 이고 yRz 이면 xRz . 다시 말해 선호의 순서는 일관적이어야 하며 내적으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개인의 경제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 행위, 즉 합리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행위, 즉 비합리적인 행위라 불린다. 앞서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인 이행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만일 어떤 개인이 귤 1개보다 오렌지 1개를 더 좋아하고 오렌지 1개보다 사과 1개를 더 좋아할 경우 그가 귤 1개보다 사과 1개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귤 1개와 사과 1개가 있을 경우 사과 1개를 선택한다면 그의 경제행위는 합리적 행위라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귤 1개보다 오렌지 1개를 더 좋아하고 오렌지 1개보다 사과 1개를 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과 1개보다 귤 1개를 더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사과 1개와 귤 1개가 있을 경우 사과 1개를 선택하는 대신에 귤 1개를 선택한다면 그의 경제행위는 비합리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합리성은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한 수단과 관련된 합리성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적 합리성은 수단적 합리성 내지 도구적 합리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¹²⁾

12)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정전(2004),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19; 이정전(2005), “경제적 합리성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 등을 참조할 것.

3. 합리성의 한 유형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그러면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합리성 개념의 몇 가지 측면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자.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합리성이 경제적 합리성과 동일하며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 이외의 여타의 유형의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인간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합리성은 경제적 합리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합리적인 행위는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라 불리는 단 한 가지 유형의 합리성만 존재하리라는 이러한 견해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합리성에 대한 현대의 철학적 논의가 시작되는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철학에서 합리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철학에서 이루어진 이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개되었다. 과거의 철학사를 살펴보면 이성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근대철학을 살펴보면 몇몇 철학자들은 오직 한 가지 유형의 이성만 존재하리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예를 들면 Descartes는 보편수학의 이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보편수학을 토대로 “수학적 이성”에 기초한 보편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비록 다양한 대상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대상 영역과 관련된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이성이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 이처럼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비추며 덮혀주는 태양은 하나이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은 하나의 동일한 수학적 이성이라는 것이다.¹³⁾ Hegel 역시 동일한 하나의 실체

13) 이 점에 대해서는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적인 이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하나의 이성이 세계사 전체의 진행과정을 지배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동일한 하나의 이성에 대한 견해에 있어 Descartes와 차이가 있다면 Descartes가 “인식론적” 혹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동일한 하나의 이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에 Hegel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동일한 하나의 이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Hegel 이후 전개된 대부분의 현대철학사조는 이처럼 동일한 하나의 이성만 존재하리라는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이성만이 존재하리라는 견해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설득력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Hegel이 타계한 후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이성 개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의 동일한 이성 개념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현대철학은 무엇보다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이성 개념 대신에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철학적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¹⁴⁾

그런데 이처럼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유형의 합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생각이었다. 실제로 현대에 진행되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pel은 자신의 초월론적 화용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1) 초월론적 반성의 합리성, 2) 형식논리적-수학적 합리성, 3) 초월론적-철학적 합리성 등을 구별하고 있다.¹⁵⁾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부, 35 이하 참조.

14) 이처럼 현대철학에서 이성 개념 대신에 합리성 개념이 사용되게 된 경위와 관련해 Schnädelbach는 이성 개념이 형이상학적 잔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낡은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반해 합리성 개념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H. Schnädelbach(1984), “Einleitung”, in: H. Schnä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8).

목적론적 행위, 규범규제적 행위, 연출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로 나눈 후 이 각각의 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네 가지 합리성으로서 1) 과학-사실적 합리성, 2)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 3) 예술적 표현적 합리성, 4) 의사소통적 합리성 등을 구별하고 있다.¹⁶⁾ 더 나아가 Acham은 1) 주관적 합리성 혹은 행위합리성, 2) 객관적 합리성 혹은 체계합리성, 3) 재구성적 합리성 혹은 과학론적 합리성 등의 개념을 나누고 있으며,¹⁷⁾ Stenmark는 1) 규범적 합리성, 2) 의무론적 합리성, 3) 수단-목적의 합리성, 4) 총체적 합리성 등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¹⁸⁾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단 한 가지의 합리성만이 존재하리라는 견해는 현대철학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견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적 합리성은 다양한 유형의 합리성 중의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경제적 합리성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행위”, 즉 경제행위가 지닌 합리성을 의미하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행위합리성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행위합리성의 한 유형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합리성을 하위개념으로 포함하는 행위합리성 이외에도 행위합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다양한 유형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의식 작용에 대해 그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경우 의식작용의 유형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합리

15) K.-O. Apel(1984), “Das Problem einer philosophischen Theorie der Rationalitätstypen”, in: H. Schnä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23.

16) J. Habermas(1983),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 Suhrkamp.

17) K. Acham(1984), “Über einige Rationalitätskonzeptionen in den Sozialwissenschaften”, in: H. Schnä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32.

18) M. Stenmark(1995), *Rationality in Science, Religion, and Everyday Life. A Critical Evaluation of Four Models of Rational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인식적 믿음이다. 우리는 어떤 인식적 믿음에 대해 그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인식적 믿음이 지닌 이러한 합리성을 인식적 합리성이라 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어떤 사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러한 믿음이 그 사태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올바른 믿음일 경우 우리는 그 믿음을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 믿음이 사태에 대한 경험과 전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형성된 그릇된 믿음일 경우 우리는 그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단 인식적 믿음 뿐 아니라 의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개인이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예를 들면 그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의 의지를 비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지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속성 혹은 비합리적 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의지의 합리성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감정이라는 의식작용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감정 표현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 인식적 합리성, 의지의 합리성 등과는 구별되는 감정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

둘째, 경제행위 이외에도 정치행위, 종교행위, 예술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인간 행위가 존재하며 우리는 경제행위에 대해 그것의 합리성을 논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유형의 인간행위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논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도 정치적 합리성, 종교적 합리성, 예술적 합리성 등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교의 이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타인과의 교제행위, 경제적 이익 등 여타의 요소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행위를 사회적 관점, 혹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종교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구별되는 종교적 합리성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과 동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도구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치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정치행위와 그렇지 못한 정치행위를 구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우리는 정치적 합리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치행위의 상당부분이 권력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고려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한에서 정치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비록 양자가 도구적 합리성이긴 하지만 정치적 합리성은 권력획득을 목표로 하는 합리성이요 경제적 합리성은 경제적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성이기 때문이다.

4.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의 합리성

더 나아가 개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합리성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견지하는 입장도 커다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이들 경제학자들은 개인과 사회를 구별하면서 개인에 대해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은 정당한 일이지만 사회에 대해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개인만이 합리적이다 혹은 비합리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뿐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이들의 견해는 우리의 상식적인 직관과는 거리가 멀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개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리적이다 혹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구성원이 서로를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잘 돌아가는 가정을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을 합리적이지 못한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를 합리적인 학교라 부르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반목, 질시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를 비합리적인 학교라고 부를 수 있다. 심지어는 합리성과 무관하리라고 생각되는 군대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인 조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조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적 합리성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합리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¹⁹⁾

개인적 합리성 이외의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적 합리성이 모두 개인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주장하듯이 사회적 합리성이 모두 개인적인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적 합리성이 개인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겨우 막 탄생한 사회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합리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합리성의 총합에 불과하며 그러한 한에서 그것은 모두 개인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사회는 역사와 전통을 통해 형성된 나름의 초개인적인 “정신”

19) 사회적 합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로는 R. Bubner, “Zur Rationalität sozialer Systeme”,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1994),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G. E. Rusconi, “Politische Rationalität und Ziviltugend”,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1994),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Ch. Menke(1994), “Unparteilichkeit und Zwang - Zum Rationalitätsdilemma moderner Gesellschaften”,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현재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정신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초개인적인 사회적 정신은 많은 경우 개인위에 군림하면서 개인의 삶 전체를 각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초개인적인 사회적 “정신”은 그 사회의 합리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합리성이 모두 개인적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실적 개념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

모든 유형의 합리성은 어떤 사실을 기술하기 위한 사실적 개념 혹은 기술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합리성의 담지자가 따라야 할 어떤 이상적 상태 혹은 합리성의 담지자가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을 지시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합리성이 앞의 경우처럼 사용될 경우 그것을 사실적 합리성이라고 부르고자 하며 합리성이 뒤의 경우처럼 사용될 경우 그것을 규범적 합리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런데 경제적 합리성의 경우에도 우리는 사실적 합리성과 규범적 합리성을 구별할 수 있다. 경제적 합리성은 현실 세계에서 수행되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사실적 합리성으로 사용된 경우이고 뒤의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규범적 합리성으로 사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제학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사실적 합리성을 의미하는지 규범적 합리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구별이 없이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제적 합리성은 그것이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뿐 아니라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에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우선 경제적 합리성이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게 될지 검토해 보자.

수리물리학이 물리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할 수 있는 정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리물리학이 고안한 수학적 모델이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 물리현상이라는 실재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리경제학 역시 경제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할 수 있는 정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리경제학이 고안한 수학적 모델이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경제현상이라는 실재와 유사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경제학이 고안한 수학적 모델이 지니고 있는 “실재와의 유사성”²⁰⁾은 수리경제학이 물리학과 유사한 정밀과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제학자들이 “실재와의 유사성”을 언급할 경우 그들은 경제이론을 전개시켜 나가면서 경제적 합리성을 일차적으로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은 “실재와의 유사성”에 대한 앞서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하면서 경제적 합리성이 현실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제행위를 기술, 설명,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실재와의 유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된 경제적 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수리경제학의 창시자들이 꿈꾸었듯이 실제로 그것이 물리학과 같은 정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은 불투명하다.²¹⁾

첫째, 사실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개념을 토대로 수학적 모델을 고안해 나가면서 주류경제학은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완전경쟁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고²²⁾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합리적인 공동체”²³⁾

20) J. von Neumann and O. Morgenstern(1990),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32.

21) 경제학에 있어 수리화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정운찬(2000), “경제학의 수리화에 대하여”, 백낙청 편, 『현대학문의 성격: 전통의 재편과 새로운 영역의 출현』, 서울: 민음사를 참조할 것.

22) K. J. Arrow/ G. Debreu(1954), “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in: *Econometrica* 22, 265 ff.

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사회가 이처럼 늘 완전경쟁상태가 실현되어 있는 사회이거나 “합리적인 공동체”인 것은 아니다. 물론 현실적인 경제사회 중에서 그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완전경쟁상태 혹은 “합리적 공동체”라는 이상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그러한 이상에 어느 정도 근접한 사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경제사회는 이러한 이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수리경제학은 완전경쟁상태 혹은 합리적 공동체라는 이상에 상당히 근접한 경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리경제학 이론은 “실재와의 유사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리경제학은 완전경쟁상태 혹은 합리적 공동체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먼 경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설령 완전경쟁상태가 구현된 합리적 공동체 안에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류경제학이 가정하듯이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양한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이 보여주듯이 이처럼 치밀한 계산을 통해 효용극대화를 지향하는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행위가 이처럼 치밀한 계산을 통해 도구적 합리성을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Tversky와 Kahneman은 개인의 선택행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개인이 실제로 주류경제학이 가정하듯이 합리적인 선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를 인용하지

23) J. von Neumann and O. Morgenstern(1990),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31.

24) A. Tversky and D. Kahneman(1987),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in: R. M. Hogarth and M.W. Reder, *Rational Choice. The Contrast*

않더라도 우리는 주위에서 개인의 경제행위가 치밀한 계산을 매개로 한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충동구매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충동구매의 예는 개인의 경제행위가 냉철하고 치밀한 계산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 감정, 동물적 충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록 충동구매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경제행위가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계산행위도 동반하지 않은 채 단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담배피는 행위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행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려하면서 담배를 사는 애연가보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일말의 고려없이 단지 “습관적으로” 담배를 사는 애연가들이 더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행위가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셋째, 구체적인 경제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단순히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요소만 지니고 있는지 하는 점은 지극히 의심스럽다. 만일 현실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단순히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요소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된 경제적 합리성을 사실적 합리성으로 간주하는 일은 타당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경제사회에서 작동하는 현실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러한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요소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유형의 합리성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를 들면 현실적인 경제적 합리성은 종종 사회적 합리성과 결합되어 등장한다. 현실적인 경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 중에서 많은 부분은 사회적 합리성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²⁵⁾ 앞서 우리는 주류경제학에 의하면 완전경쟁상태가 실현된 사회 혹은

between Economics and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7 ff.

전적으로 합리적인 공동체라는 전제위에서만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 역시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이 전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사회 이외의 현실적인 경제사회에서 수행되는 경제행위를 기술, 설명, 예측하기 위한 사실적 합리성으로 사용될 경우 그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넷째, 설령 완전경쟁상태가 실현된 합리적인 공동체에서 경제행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시켜 논의를 진행시키더라도 도구적 합리성 개념의 한 유형인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해보면 우리는 사실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주관적 합리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객관적 합리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별은 어떤 개인이 자신의 경제행위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러한 그의 생각이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냐에 따른 구별이다. 이 경우 우선 어떤 행위자의 경제행위가 주관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함은 그가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위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자의 경제행위가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함은 그가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위할 경우 그뿐 아니라 그가 주위에서 만나는 일군의 타인들 역시 그의 행위를 타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행위자의 경제행위가 객관적 합리성을

25) 이 점에 대해 K. J. Arrow는 합리성은 “자신의 힘뿐 아니라 그의 의미 역시 그것이 뿌리박고 있는 사회적 맥락에서 길어온다”(K. J. Arrow(1987), “Rationality of Self and Others in an Economic System”, in: R. M. Hogarth and M.W. Reder, *Rational Choice. The Contrast between Economics and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고 말한다.

지니고 있다 함은 그가 자신의 행위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면서 행위할 경우 그것이 상호주관적 합리성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부터 실제로 합리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이 주관적 합리성, 상호주관적 합리성, 객관적 합리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학은 경제행위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구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주류경제학 중에서도 어떤 유형의 경제학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합리성 중에서 어떤 특정의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전개되며 또 다른 유형의 경제학은 또 다른 유형의 경제적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다. 예를 들면 한계효용학파의 경우 합리성은 암묵적으로 객관적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과 관련해 우리는 앞서 소비이론을 예로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은 매순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능성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능성들을 비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행위가능성들을 비교하면서 그 중에서 자신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위가능성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다 함은 실제로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행위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선택가능성과 관련된 합리성은 객관적 합리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임이론에 기초한 경제학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은 객관적 합리성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합리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게임이론에 기초한 경제학의 경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자는 결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²⁶⁾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행위 중에서 어떤 것은 단지 주관적 합리성만을 지니며 어떤 것은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지닐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객관적 합리성도 지닐 수 있다. 다시 말해 경

26) 게임이론에서 합리성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완진, “합리성과 게임이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 참조.

제역역이란 주관적 합리성을 지니는 경제행위, 상호주관적 합리성을 지니는 경제행위, 객관적 합리성을 지니는 경제행위가 혼재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합리성은 그 본성이 다르며 따라서 이 각각의 합리성 개념에 토대를 두고 경제학을 전개시킬 경우 그를 토대로 전개되는 경제학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제학적 모델만 존재할 수 있을뿐 이 모든 경제학적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통일적인 경제학은 존재할 수 없다.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은 그것이 현실적인 경제행위를 기술, 설명, 예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실적 합리성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주류경제학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수학적 모델을 발견하면서 수리물리학과 유사한 수리경제학으로 발전하면서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 기술, 예측 등을 할 수 있는 정밀과학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실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토대를 두고 일종의 수리경제학으로 전개된 주류경제학이 경제현상을 설명, 기술, 예측할 수 있는 정밀과학으로 발전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수리물리학의 이론은 상당할 정도로 “실재와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것은 물리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리경제학의 이론이 “실재와의 유사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예측함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규범적 개념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이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타의 합리성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은 사실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은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닐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가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가 하는 점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앞서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어떤 개인의 행위가 올바른 행위가 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규범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점을 기업활동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규범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평가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미국에서 기업활동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자.

미국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함을 목표로 하지 그 어떤 다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 한국사회에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2004년 초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의 발언이 있는 후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기업의 목표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대부분의 미국인들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용성 회장은 당시 중고교 교사들에게 기업의 목표에 대해 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²⁷⁾

“기업의 목적은 부의 사회환원이라고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한 연구원이 기업이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국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업이 실업자 구제기관입니까? 손해 보

27) 중앙일보, 2004년 2월 2일, 25면.

는 것 알면서 필요 없는 사람을 뽑는 기업이 있다면 위선자입니다. 기업은 좋은 제품 만들고, 돈 많이 벌어 세금 많이 내는 것으로 국가에 기여합니다. 그 결과로 국부가 커지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물론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기부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업보고 모두 자선단체가 되라는 식의 규범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커다란 파문을 몰고 왔다. 며칠 뒤 중앙일보 정운영 논설위원은 “청년실직 문제가 흑독한 시대에 기업의 실업구제 야유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흑독하게 비판하였다.²⁸⁾

“기업의 이윤은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당연한 것이다. 물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많이 내어 국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은 옳다. 그러나 박 회장이 ‘교과서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기술한 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뉘앙스가 달라진다. 기업인들이 돈 벌어 세금 내면 그만이라면서 정부가 소비와 투자활성화와 관련해 근본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대드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정부는 돈벌이 명석만 펴고, 기업은 돈만 버는 것이 기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박 회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발언은 예상 밖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²⁹⁾ 박 회장이 그의 발언을 미국의 중교교 교사들 앞

28) 중앙일보 2004년 2월 11일, 27면.

29) 박 회장의 발언이 있는 뒤 필자 역시 주위에서 만난 몇몇 분들에게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박 회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벤처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분조차도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많이 내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박 회장의 말은 정당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듯한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에서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박 회장이 자신의 발언을 미국의 중고교 교사들을 상대로 했더라면 참석자들은 이러한 발언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미국 사회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해명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에서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박 회장에게는 “기업의 목표가 이윤추구에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비판하는 이러한 논자들의 견해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우 박 회장이 이러한 논자들의 견해를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는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모든 경제행위가 따라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 나름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사회는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규범적 합리성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따라서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은 보편타당한 의미에서 규범적 합리성의 지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 그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규범적 합리성으로 이해될 경우 이처럼 도구적 합리성만을 지니는 규범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과연 실제로 경제적 의미의 효용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

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한국현대사에서 재벌기업이 성장해 온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리성뿐 아니라, 사회적 합리성, 가치합리성 등 여타의 유형의 합리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을 경우에 효용극대화를 가져오며 따라서 이 경우에만 진정한 의미의 규범적 합리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적 탁월성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할 것이다.³⁰⁾ Hargreaves Heap에 의하면 퀘이커 교도들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의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 그들은 오히려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협동, 신의, 성실 등의 덕목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지닌 무능함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비단 미국의 퀘이커 교도들에게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우리는 박회장의 발언이 물고온 사회적 파장을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기업인들이 단순히 이윤의 극대화라는 구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떠맡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이윤극대화도 보다 더 잘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둘째, 우리는 설령 도구적 합리성만을 지니는 경제적 합리성이 경제적 의미의 효용극대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규범적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주체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인가 하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앞서 박용성 회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사회가 보인 반응은 진정한 의미의 규범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단지 도구적 합리성만을 지니는 경제적 합리성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선 경제적 합리성이 참다운 의

30) S. Hargreaves Heap(1989), *Rationality in Economics*, 170-171.

31) Hargreaves Heap는 이처럼 경제적 합리성이 단순한 도구적 합리성의 차원을 넘어서 참다운 의미의 경제적 합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요소를 “표현적 합리성”(expressive rationality)(S. Hargreaves Heap(1989), *Rationality in Economics*, 148 ff.)이라 부른다.

미의 경제적 합리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경제적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뿐 아니라 여타의 다양한 유형의 비도구적 합리성도 겸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구성하는 요소인 도구적 합리성과 비도구적 합리성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도구적 합리성이 때로는 도덕적 합리성 등과 같은 비도구적 합리성에 종속될 수도 있음을 함축한다.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 맹목적으로 효용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경우에 따라 인류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그것은 규범적 합리성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도구적 합리성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경제행위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행위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함축을 지니고 있는 주장일 수도 있다.

7.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합리성 개념이 지닌 몇 가지 측면을 검토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점과 관련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글 전체의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하자.

첫째, 지금까지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해 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동안 경제학이 이룩한 업적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동안 경제학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폄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다만 경제학자들에게 그들의 이론을 떠받들고 있는 철학적 토대에 대해 한번 반성해보고 이러한 반성을 통해 그들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결함이 드러난다면 그러한 결함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데 있다. 물론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비판에 대해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이 대안 없는 공허한 비판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이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허한 비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

리의 비판이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비판을 접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학문적 작업을 한번 반성적으로 돌아보면서 대안적인 이론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자들이 무엇보다도 앞서 반성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그들의 경제학 이론에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실증주의적 전제들일 것이다. 이 경우 실증주의라 함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 파악된 실증과학적 진리만이 세계와 관련된 유일한 진리라는 입장을 말하는데 실제로 주류경제학은 수없이 많은 실증주의적 전제들에 입각해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우리는 주류경제학의 창시자들이 경제학도 실증적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수학적 방법을 사용해 언젠가는 “실재와의 유사성”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그들의 기대는 바로 실증주의의 지나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주류경제학자들은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수학적 방법을 통해 경제학을 일종의 자연과학으로 탈바꿈시키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처럼 경제학의 모든 영역이 일종의 자연과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지탱하는 실증주의적 전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실증주의적 전제 너머에 있는 새로운 경제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완진(2005), “합리성과 게임이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1.
- 김청택(2005), “경험과학에서의 합리성의 개념: 논리학적 접근과 심리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
- 박정순(1998), “호모 에코노미쿠스 살생부”,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제21집.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전(2004),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19.
- 이정전(2005), “경제적 합리성 비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20.
- 정운찬(2000), “경제학의 수리화에 대하여”, 백낙청 편, 『현대학문의 성격: 전통의 재편과 새로운 영역의 출현』, 서울: 민음사.
- 중앙일보, 2004년 2월 2일자 25면, 2004년 2월 11일자, 27면.
- Acham, K.(1984), “Über einige Rationalitätskonzeptionen in den Sozialwissenschaften”, in: H. Schn 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 Anderson, E.(2000), “Beyond Homo Economicus: New Developments in Theories of Social Norms”, in: *Philosophy & Social Affairs* 29/2.
- Apel, K.-O.(1984), “Das Problem einer philosophischen Theorie der Rationalitätstypen”, in: H. Schnä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 Arow, K. J./G. Debreu(1954), “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in: *Econometrica* 22.
- Arrow, K. J.(1987), “Rationality of Self and Others in an Economic System”, in: R. M. Hogarth and M.W. Reder, *Rational Choice. The Contrast between Economics and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G. S.(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Ner A. and L. Putterman(eds.)(1998), *Economics, Values, and Organ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Bubner, R.(1994), “Zur Rationalität sozialer Systeme”,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 Buchanan, J. M. and G. Tullock(1974),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Gauthier, D.(1988), *Morals by Agreement*, Oxford: Clarendon Press.
- Habermas, J.(1983),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 Suhrkamp.
- Hargreaves Heap, S.(1989), *Rationality in Economics*, London: Basil Blachwell Ltd..
- Hollis, M. and E. J. Nell(1975), *Rational Economic Man*, London/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hneman, D.(2000), "New Challenges to the Rationality Assumption", in: D. Kahnemann and A. Tversky(eds.), *Choices, Values, and Fram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ille, P.(2000), "Foundations of Procedural Rationality", in: *Economics and Philosophy* 16.
- Leibenstein, H.(1976), *Beyond Economic Man. A New Foundation for Microeconom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nke, Ch.(1994), "Unparteilichkeit und Zwang - Zum Rationalitätsdilemma moderner Gesellschaften",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 Park, J. S.(1992), *Contractarian Liberal Ethics and the Theory of Rational Choice*, New York: Peter Lang.
- Radnitsky G. and P. Bernholz(1987), *Economic Imperialism*, New York: Paragon House.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sconi, G. E.(1994), "Politische Rationalität und Ziviltugend", in: H. F. Fulda und R.-P. Horstmann(Hrsg.), *Vernunftbegriffe in der Moderne*, Stuttgart: Klett-Cotta.
- Schnädelbach, H.(1984), "Einleitung", in: H. Schnädelbach, *Rationalität. Philosophische Beiträge*, Frankfurt/M.: Suhrkamp.

- Sen, A.(1977), "Rational Fools",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6.
- Simon, H.(1982),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Cambridge, MA: MIT Press.
- Stenmark, M.(1995), *Rationality in Science, Religion, and Everyday Life. A Critical Evaluation of Four Models of Rationali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Stewart, H.(1995), "A Critique of Instrumental Rationality", in: *Economics and Philosophy* 11.
- Tversky, A. and D. Kahneman(1987), "Rational Choice and the Framing of Decisions", in: R. M. Hogarth and M.W. Reder, *Rational Choice. The Contrast between Economics and Psycholog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on Neumann, J. and O. Morgensern(1990),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ossenkuhl, W.(1985), "Types of Rationality and Economic Action", in: P. Koslowski, *Economics and Philosophy*, Tübingen: J.C.B. Mohr.
- Walras, L.(1954), *Elements of Pure Economy or The Theory of Social Wealth*, trans. by W. Jaff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Walsh, V.(1996), *Rationality, Allocation, and Reproduction*, Oxford: Clarendon Press.

원고 접수일: 2005년 4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5년 6월 8일

ABSTRACT

Philosophical Reflection on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Lee, Nam-In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ccording to the mainstream economics, economic rationality is an instrumental rationality; it is the rationality par excellence to which all the other kinds of rationality could be reduced; it is only the individual, not the society that could be the bearer of rationality; economic rationality as an instrumental rationality could be the foundation of economics.

Contrary to what mainstream economics presupposes, there are various kinds of rationality that cannot be reduced to economic rationality. It is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the society that could be the bearer of rationality and one can talk about social rationality as well.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is ambiguous, since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descriptive one or as a normative one. Moreover,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as a descriptive one as well as a normative one has some difficulties.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as a descriptive one is problematic, since there are so many types of economic behavior that do not have the property of economic rationality.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does not enable us to describe properly all types of economic behavior.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as a normative one is also problematic, since it is not clear if an economic behavior or an economic society that incarnates economic rationality is really an ideal one. The concept of economic rationality as a normative one is not free from ideological implication.

